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4.10.11(금) ~ 2024.10.17(목)

제공일시 2024 10 25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

문의 02 398 7675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4.10.11(금) ~ 2024.10.17(목)

제공일시 2024 10 2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글로벌 정책

1. 美, 중국 이어 동남아도 제재... 한국 태양광 '풍선효과' 기대감

-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동남아 생산 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한국 태양광 업체들이 반색하고 있음
- 미국의 태양광 시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만큼 미국에서 한국산 태양광 제품에 눈을 돌리는 흐름이 확대되면 '풍선효과'를 누릴 수 있음
- 최근 미국 상무부는 캄보디아·말레이시아·태국·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전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함. 최종 관세율은 내년 2월 결정됨
- 태양광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공급 과잉, 혈값 경쟁으로 과열되고 있는 '치킨게임'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함

[\(중앙일보 2024.10.15\)](#)

2. 캐나다서 터진 탄소세 논쟁, "이익 vs 비용"... 대기업 기후공시 의무화도 선언

- 탄소세에 대한 논쟁이 캐나다에서 다시 한번 불이 붙음. 캐나다의 국회 예산처가 10일(현지시각) 예산 보고서를 발표한 후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과 보수당 사이에 논쟁이 촉발됨
- 논쟁의 핵심은 탄소세가 가구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지, 아니면 큰 피해를 남길지 여부임
- 해외 미디어 블룸버그는 11일(현지시각) 보수당과 트뤼도의 자유당이 같은 보고서에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낸 이유는 내년 10월에 있을 총선에서 기후 관련 정책인 탄소세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함

[\(임팩트온 2024.10.14\)](#)

3. COP29 앞둔 EU, 저탄소기술 원전 촉구 첫 동의... 韓 CFE이니셔티브 확산 전망

- 유럽연합(EU) 회원국들이 15일(현지시간)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29) 개막을 약 한달 앞두고 저탄소기술 촉구 시 원전을 포함시키는 것에 처음 동의함
- 16일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, 이날 열린 EU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EU가 COP29 당사국 의무사항 일환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지지를 처음 표명함
- 이번 합의안은 다음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릴 COP29에서 EU의 협상 권한을 명시함
- 이에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안한 무탄소에너지(CFE) 이니셔티브가 COP29를 계기로 본격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

[\(전자신문 2024.10.16\)](#)

국내 정책

1. 정부,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 도입... 현대차·기아 시범사업 참여

-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. 배터리 인증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
- 정부는 이번 달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에 안착시켜 전기차 안전성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임
- 이번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에는 업계 수요조사 결과 승용차 배터리 부문에서는 현대, 기아가, 이륜차 배터리 부문에서는 그린모빌리티, 대동모빌리티, LG엔솔 등 총 5개 업체가 참여함

[\(세계비즈 2024.10.16\)](#)

2. 정부, '공급망 선도사업자' 84개사 선정... 5조원 기금 지원 개시

- 경제안보 품목 55개와 2개 서비스에 대해 공급망 안정화 앵커 기업인 '선도사업자'로 모두 84개 기업이 선정됨
-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제2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'선도사업자 선정 결과 및 공급망안정화 기금 운용계획' 등을 논의함
- 최 부총리는 "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 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"이라며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 점검·조기경보·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함
-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 또는 경제안보 서비스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해 인정받은 사업자인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 바 있음
- 선도사업자는 최대 5년까지 지정되며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중점 지원받음

[\(연합뉴스 2024.10.16\)](#)

3. 정부, 전기차 보조금 확대 고심... 수백만원 싸질 듯

-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시점을 고민 중임. 완성차 업체들이 대폭 할인에 나서는 연말에 정책을 시행할지, 내년 초로 미룰지 검토하고 있음
- 완성차 업체가 할인하고 보조금이 추가되면 전기차 가격은 수백만원 저렴해질 전망이다
- 16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, 환경부는 추가 보조금 지급 시기와 보조금 상한선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. 5500만원 미만 전기차에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과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가격을 할인하면 그에 맞춰 보조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을 검토 중임
- 환경부 관계자는 "아직 명확하게 (보조금) 수치를 정하진 않았다. 보조금 지급 시점도 결정해야 한다"고 말함

[\(조선일보 2024.10.16\)](#)

글로벌 기업

1. 빅테크, 원전 전력 확보에 집중... 구글, 소형원전 기업과 첫 계약

- 구글이 인공지능(AI)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소형모듈원전(SMR) 기업과 계약을 맺음
- 14일(현지시간) 구글은 미 스타트업 카이로스 파워(Kairos Power)가 향후 가동하는 SMR의 에너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. 이는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, AI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구글의 첫 번째 원전 계약임
- 구글은 앞으로 카이로스가 가동하는 6~7개 원자로에서 총 500메가와트(MW)의 전력을 구매하기로 함

[\(헤럴드경제 2024.10.15\)](#)

2. RWE, 토탈에너지스와 4GW 해상풍력 공동 추진

- 독일과 프랑스의 에너지 대기업인 RWE와 토탈에너지스(TotalEnergies)는 독일 북해에서 총 4GW 규모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발표함
- 이번 협약에 따라 토탈에너지스는 RWE로부터 두 개의 대형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50% 지분을 인수함. 이를 통해 두 회사는 독일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하게 됨
- 해상 건설은 필요한 허가 및 그리드 연결 승인을 거쳐 2029년과 2030년에 시작될 예정임

[\(임팩트온 2024.10.15\)](#)

3. 佛 에어리퀴드, LG화학 美 전기차 공장 '장기 계약'

- LG화학이 미국 테네시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던 프랑스 기업 에어리퀴드(Air Liquide)가 장기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짐
- 지난 15일 에어리퀴드는 LG화학과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산소 공급을 위한 현지 생산 능력 및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확장한다고 발표함. 이 계약에 따라 에어리퀴드는 LG화학이 2026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공장에 산소를 공급하게 됨

[\(KPI뉴스 2024.10.16\)](#)

4. 비야디, 독일 전기차 시장에 대대적 진출 선언... 유럽 시장 공략 시작

-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는 독일 전기차 시장에서의 빠른 성장 전략을 내세우고 있음. 이 회사의 스텔라 리 부사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내 판매를 6개월 이내에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
- 리 부사장은 독일 시장 진출이 "반년 이내"에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독일 내 판매 팀을 확충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할 계획임을 언급함

[\(공감신문 2024.10.14\)](#)

국내 기업

1. LG엔솔, 포드와 13조 규모 상용차 배터리 공급 계약

- LG에너지솔루션이 포드에 대규모 상용차용 배터리를 공급함
- LG에너지솔루션은 15일 포드와 총 109GWh 규모의 전기 상용차 배터리 셀·모듈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
- 이는 전기차 1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3조원으로 추정됨. 모든 제품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임
-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하는 배터리는 포드의 차세대 전기 상용차 모델 이-트랜짓(E-Transit)에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짐

[\(조선일보 2024.10.15\)](#)

2. “에너지 사업 강자로 우뚝”... 현대엔지니어링, 태양광 ‘2조 잭팟’

- 현대엔지니어링이 세르비아에서 역대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따냄.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, 현대엔지니어링은 미국 태양광업체 UGT리뉴어블스와 컨소시엄을 이뤄 세르비아 정부가 발주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수주함. 지난해 11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지 약 11개월 만임
- 이 사업은 세르비아 남동부 지역에 1기가와트(GW)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와 200메가와트(MW)급 전력저장 시스템을 짓는 사업임. 현대엔지니어링은 설계·조달·시공(EPC)을 담당함

[\(시사저널 2024.10.16\)](#)

3. 두산퓨얼셀, 中 최대 에너지사와 신재생·수소 협력

- 두산퓨얼셀이 중국 최대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 중국에너지건설유한공사(China Energy Engineering Corporation Limited, CEEC) 등과 중국 내 신재생·수소에너지 분야 협력에 나섬
- 중국은 2025년 수소 산업 총생산액이 1조 위안(약 191조원)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
- 15일 중국 언론 스지신닝위안왕(世纪新能源网·세기신에너지망)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, 두산퓨얼셀은 CEEC, CEEC 자회사 CEEC수소에너지, 산시진준(陕西金骏)그룹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략적 협약을 맺음
- 협약은 지난 8월에 이뤄졌지만 계약상 이유로 늦게 알려졌다고 함

[\(조선일보 2024.10.15\)](#)

4. 포스코퓨처엠, 포항 NCA 양극재 전용공장 본격 가동

- 포스코퓨처엠은 12일 포항 NCA 양극재 전용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초도출하하며 본격 가동했다고 13일 밝힘
- 포스코퓨처엠은 포항에 연산 3만톤 규모의 첫번째 NCA 양극재 전용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대규모 수주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양산체제를 갖추게 됨

[\(팜코뉴스 2024.10.13\)](#)

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 기간: 2024.10.11(금) ~ 2024.10.17(목)

제공일시 2024 10 2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독일, '탄소차액계약제도'에 따라 탈탄소화한 기업에게 보조금 지급

- 독일 무역투자청은 지난 15일(현지시간) 탄소차액계약제도에 따라 탈탄소화를 시도하는 15곳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8억 유로(약 4조1523억위)를 책정했다고 발표했다

- 지난해 6월 독일 정부는 2045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(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s, CCfDs.)를 도입한 바 있음

- 이는 기후 중립을 달성하려는 목표의 일환으로,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인 유리, 종이, 화학, 제지 등의 산업 기업에 15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

- 15개 프로젝트는 계약 기간 15년 동안 1700만톤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독일 연방환경청(Federal Environment Agency)에 따르면, 2023년 독일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74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

- 계약을 통해 기업들은 친환경 생산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상받게 됨

- 비평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“보조금으로 인한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, 독일의 배출량은 약간 감소할 것”이라고 전했다. 이어 “에너지 집약 산업들은 가격이 낮은 다른 국가의 산업을 지원하게 될 것”이라고 평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

- 반면 독일 정부는 “이번 보조금 지급은 재생에너지의 증가로 운영에 차질을 입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”라고 전했다

- 이 제도의 첫 번째 수혜자는 글로벌 화학기업인 바스프(BASF)임. 이어 유럽 내 최대 워당 생산업체인 쾨트주커(Suedzucker), 다국적 개인용품 제조기업 킴벌리-클라크(Kimberly-Clark)의 독일 자회사이자 상업용 자재 유통 기업인 생고뱅(Saint-Gobain)과 벽돌 제조업체인 비너버거(Wienerberger)가 보조금을 받을 예정임

- 무역투자청 장관 로버트 하베크는 성명을 통해 “독일은 탄소차액계약제도를 이행한 최초의 EU 회원국으로 이를 통해 산업 탈탄소화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”라고 말했음

- 이어 “탄소차액계약은 기업이 변화의 시기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것, 즉 투자를 계획할 수 있는 안정성을 제공한다”라며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를 밝혔음

- 정부는 올해 말에 2차 라운드를 실시하고, 2025년에 지급할 보조금으로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낮은 금액을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음

- 무역투자청에 따르면, 이 계약에는 에너지와 이산화탄소의 가격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유연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포함돼 있음. 이 조항에 따라 보조금은 최대 측정된 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비용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

[\(인팩트온 2024.10.17\)](#)